

# 첫 경기부터 맹활약...황인범, 개막전서 도움 '최고 평점'

## 세르비아 즈베즈다 중앙미드필더 선발 출전 4-0 이끌어

세르비아 프로축구 FK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중원 조율사' 황인범(27)이 정규리그 개막전부터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최고 평점을 받는 맹활약을 펼쳤다.

즈베즈다는 21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치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1라운드 홈경기에서 승격팀 FK 에딘스트보에 4-0 승리를 거뒀다.

세르비아가 수페르리가 7연패에 빛나는 즈베즈다는 개막전부터 화려한 골 폭풍을 몰아치며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과시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2-0으로 앞서던 후반 8분 알렉산드르 카타이의 썩기골에 도움을 주고, 후반 24분에는 브루누 두아르테의 마무리 득점 때 시발점 역할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즈베즈다는 전반 18분과 전반 23분에 세리프 은 디아예가 멀티골을 완성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후반 들어서는 황인범의 날카로운 발끝 감각이 돋보였다.

황인범은 후반 8분 중앙선 부근에서 전방으로 세

도하는 카타이를 향해 중원 압박을 이겨내고 정확한 침투 패스를 찔러줬다.

볼을 이어받은 카타이는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나온 황인범의 리그 1호 도움이었다.

황인범은 후반 24분 라자르 요르바노비치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황인범의 발을 떠난 볼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왔고, 두아르테가 골 지역 정면에서 재빨리 오른발로 차넣어 득점을 완성했다. 황인범의 슈팅이 이날 마지막 득점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후반 35분 교체된 황인범은 이날 1도움에 패스 성공률 97%, 9차례 키패스의 뛰어난 활약으로 소 파스코어로부터 팀 내 최고인 평점 9.3을 받았다. 멀티골을 넣은 은디아예(8.6점)를 훨씬 앞선 평점이다.

지난달 K리그1 울산 HD를 떠나 즈베즈다에 합류한 오른쪽 풀백 설영우(25)는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세르비아 프로축구 FK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황인범이 21일 열린 2024-2025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1라운드 홈경기에서 FK 에딘스트보를 상대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즈베즈다 제공>

## 진격의 전남드래곤즈, 부산에 12경기 연속 무패 '달미'

### K리그2 23라운드 2-3 패

전남드래곤즈의 12경기 연속 무패가 무산됐다.

전남이 지난 20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2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3으로 졌다. 최근 8승 3무를 기록했던 전남은 새 사령탑으로 새 판을 짰 부산에 막혀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앞서 부산은 성적 부진으로 박진섭 감독이 물러나면서 조성한 전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겼다. 그리고 새 감독 체제로 첫 경기에 나선 부산은 이동수의 골을 시작으로 연달아 3골을 넣으면서 전남을 압박했다.

전반 32분 전남의 골대가 열렸다. 아프리카인 부

근에서 공을 뺏겼고 흐른 공을 잡은 이동수가 전남 진영으로 질주했다. 그리고 페널티아크 바깥쪽에서 이동수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잠시 뒤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0분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부산으로 이적한 유혜이가 진정을 상대로 시즌 마수걸이 골을 장식했다. 이번에도 패스 미스로 전남 진영에서 공을 뺏겼고, 유혜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해 부산의 두 번째 골을 장식했다.

후반 15분에는 이동수에게 멀티골을 허용했다. 리마스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페널티박스까지 진입한 이동수가 골키퍼 류원우 다리 사이로 슈팅을 시도했고 부산의 세 번째 골이 완성됐다.

연달아 3골을 허용한 전남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

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왼쪽에서 공을 띄웠고 조지훈이 헤더로 시즌 3호골에 성공했다. 발디비아의 시즌 4호 도움.

3분 뒤에는 발디비아가 득점 세리머니도 펼쳤다.

골대 오른쪽에서 박태용이 넘겨준 공을 받은 발디비아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이와 함께 발디비아의 시즌 7호골이 기록됐고, 점수는 2-3이 됐다.

하지만 전남이 막판 공세를 벌였지만 끝내 추가 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여수 유일 여성 족구팀 '크러쉬' 시장기 우승



여수 유일의 여성 족구팀 '크러쉬'가 최근 여수 진남체육관 축구장에서 치러진 '제19회 여수시장기 족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여성 족구팀 '크러쉬'가 여수시장기 족구대회에서 '질크러쉬'로 노련한 남성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크러쉬는 최근 여수 진남체육관 축구장에서 치러진 '제19회 여수시장기 족구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여수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1·2·3부 ▲50대부 ▲실버&여성부 총 5개부에 49팀 500여명이 참가했다. 실버&여성부는 9개의 남성팀과 단일 여성팀으로 구성된 대결을 벌였다.

실버&여성부에 출전한 '크러쉬'는 '쌍마'와의 8강전(21-19)에 이어 '가을B'(21-18), '선봉'(21-19)을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50대부와 관내1부 경기는 풀리그 방식, 관내2·3부와 실버&여성부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50대부에서는 '여수JC(광휴)'팀, 관내 1·2·3부에서는 '신화A', '블랙홀A', '포스코퓨처엠'팀이 우승하며 기량을 뽐냈다.

한편 크러쉬는 여수의 유일 여성 족구팀으로 2018년 창단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희권 여수족구협회장은 "생활체육 족구를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이 함께 맘 힐리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한 행사로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K태권도 우수성 알린 '2024 광주 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성료

### 전세계 1400여 명 참가

2024 광주 오픈 국제 태권도대회가 20일과 21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태권도를 통한 국제 교류로 전 세계에 태권도의 우수성과 빛고을 광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1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치러졌다.

대회에 참가한 미국, 멕시코 등 각국 해외 선수단 200여 명과 국내 선수단 1200여 명은 겨루기와 품새 2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겨루기 부문 참가자들은 시니어부, 주니어부(만 13-15세), 카뎃부(만 11-12세), 어린이부(만 9-10세)로 나뉘어 경기를 치렀다.

품새 경기는 선수단의 국적에 따라 국내 품새 경기와 해외 품새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내 품새 부문은 총 13개 부로 나뉘어 개인전과 단체전(3인 1조)이 펼쳐졌고, 해외 품새 부문은 단체전 없이 4인 1조의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개인전 경기만 진행됐다.

한편, 광주 오픈 국제 태권도대회는 2017년 첫 대회 이후 8번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태권도협회 이영석 회장은 "대회가 잘 마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오픈 국제 태권도대회에서 21일 품새(경기장 위쪽)와 겨루기 종목에 참가한 선수단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무리되어 기쁘다. 태권도를 통해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나달, 노르디아오픈 테니스 결승 진출

### 19년 만에 패권 탈환 도전

라파엘 나달(26위·스페인)이 약 2년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결승에 진출했다.

나달은 21일 스웨덴 베스타드에서 열린 ATP 투어 노르디아오픈(총상금 57만9천320 유로) 대회 6일째 단식 준결승에서 두제 아주코비치(130위·크로아티아)를 2-1(4-6 6-3 6-4)로 물리쳤다.

나달은 2022년 6월 프랑스오픈 우승 이후 2년 1

개월 만에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결승에 올랐다.

나달은 전날 마리아노 나보네(36위·아르헨티나)와 4시간 접전 끝에 2-1(6-7(2-7) 7-5(7-5))로 이겼고, 바로 다음 날에도 2시간 13분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됐다.

나달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자신의 통산 93번째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르게 된다.

나달의 결승 상대는 누누 보르헤스(51위·포르투갈)다. 2005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나달은 19년 만에 패권 탈환에도 도전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